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재가계와 출가계

우리가 신행하고 있는 불교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불교 역사만큼이나 장구한 세월동안 시공을 달리하며 발전해 온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대소승 경전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모든 불교신도들이 불교 학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이 걸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성립된 대소승의 경전을 하나의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종파 나름대로 교관론의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각 종파 나름의 주의와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상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지만, 각 종파에 맞는 신앙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순서 없이 뒤섞여 들어온 대소승 경전을 일관되게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웠으며, 그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교관론인 것이다.

계율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재가자들은 모두 3계율과 5계를 수지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사불교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재가자들이 지키는 5계와 출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4바리이법은 형태상 동일하다. 5계 중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만 4바리이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재가자는 세속 생활을 하므로 부부간의 음행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부 이외의 음행을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섣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 것이다. 그렇지만 출가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이유로도 음행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재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인 것이다. 또한 거짓말을 해선 안 되는 조항도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이가 없다. 다만 깨닫지 않았으면서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에 속하는데 재가자 보다는 주로 출가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전에 의하면 출가자들이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과장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깨달게 될 것이라 허풍치는 것은 거짓말에 속하지 않는다. 미려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한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별은 성교의 유무와 깨달음에 대한 거짓말에 달려 있다. 특히 성행위 문제로 아무리 학식이 높고, 인품이 고매해도 결혼한 사람은 결코 출가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한국불교 현

5계와 4바리이법 계율에 일부차이 '대승' 선 출·재가 구별을 집착 간주

한 의미의 불교신도는 될 수 없다. 출가자 역시 4바리이법을 중심으로 250계가 시설되어 있다. 4바리이법은 간음, 살생, 도둑질, 거짓말의 네 가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음장에 의하면 4바리이법을 어진 승려는 교단에서 추방된다. 그들이 다시 교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다. 이것은 4바리이법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었는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불교에서 교단 추방 보다 무거운 벌은 없기 때문이다. 4바리이법 이외의 사항은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으로 용서가 되었다. 만일 어느 승려가 대중들에게 참회했음에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4바리이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출가자는 어떠한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거 부처님 당시에 결혼한 뒤 출가한 사문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이전의 아내와 동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부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행해선 안 된다고 설교한다. 또 어떤 출가자는 원승이와 성교를 한다. 그는 사람과 음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율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항변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간도 음행으로 간주한다.

실에서 수많은 재가교단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만일 그들이 출가자로서의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계율에 대한 문제부터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은 포교사, 전법사란 칭호는 어울릴지 몰라도 승려란 호칭은 맞지 않는다. 불교운동가로서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일이다. 폄하될 일은 더욱 아니다. 그렇지만 계율의 문제가 등장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이념에 따르면 출가와 재가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의 집착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런 외형상의 문제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궁행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살이나 아나히의 문제이지 승려나 아나히의 문제는 아니다. 대승불교의 이념에선 출·재가를 하나의 사회적 역할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차의 우열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대승불교란 새로운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불법은 법 중에 가장 위대해서(摩訶大法王)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無短亦無長) 본래 근본은 회지도 겸지도 없으니(本來非白非黑) 곳에 따라 푸르고 누른 빛을 나타낸다.(隨處現青黃)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본문제 앞에서 고뇌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신음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인가 지표를 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연하게 바깥 세계에만 한눈을 팔다보니 불안과 괴로움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바람주머니를 잃어버리면 표류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낯선 길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출린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질이라



◊참고 살아야 하는 사바세계에서 혜초스님은 늘 환한 미소로 신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다.

“함께 잘 살려는 노력 올바른 신행의 자세”



혜초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는 귀신, 나만이 짊었다면서도 곧잘 '네가 최고'라는 등의 마귀에 홀려 있는 형국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내 것, 네 것이라는 분별은 잘하면서 진자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이나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도리어 거주장스럽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다 같은 한 세계에 살면서 공업(供業)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중생이 각기 다른 세계에 산다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망은 금물입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값진 시간을 살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심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상이 있으면 그 이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명실상부할 때야 그 실체는 아름답게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불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불교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마음을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타르타 태자가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고 깨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된 것이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도불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전해진 가르침은 많은 범문, 많은 경전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하나를 전한 것입니다. 중국 선불교의 조조로 불리는 달마대사는 제2조 혜가 스님에게 불법의 진수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출가이후 60여년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 예불과 독경, 참선을 거르지 않은 혜초스님은 '수행이 생활화 되어야'다 고 말한다.

마음을 알면 불교 다 아는것

마음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心外無佛) 부처 밖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佛外無心) 마음이 즉 부처이고(心即是佛) 부처가 곧 마음이다.(佛即是心)

또한 조사어록에 이런 계승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전하신 조사의 뜻은 너무도 당당해서(西來祖意最當當)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밝히려 뜻 알 수 있다.(自淨其心性本行) 부처는 너무도 고요하여 머무는 바가 없으며(妙體湛然無處所) 산하대지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山下大地現眞光)

불교, 한방, 심리학 및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현재 불교 포교사 활동 중인 분이나 스님 또는 앞으로 포교사 활동 예정인 중생구제의 대원력을 세운분들에 한함!

수행과제

1. 경략학, 기치로 원리 및 실기, 심리학, 대체의학 불가의 비전술, 오행환술, 신체교정운동법,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심경질환 중풍 예방법 전수 각종 난치 질환 신병 귀신병(병의)
2. 오행기전집법 (상대의 목소리만으로도 현재 아픈 곳 진단가능) 원거리氣場사법(멀리있는 상대에게 기운 운공가능)

수행과정

천기운행법으로 상태를 정확히 알수있는 지상 최고의 육통법(숙명통) 일반역학과는 차원이 완전히 틀림

▶ 과 정 : 3개월 (1개월 속성코스도 있음)

▶ 강의로 : 3개월 300만원

절에서 일하실 20세 ~ 25세 女구함 (0명)

보수 : 월 60 ~ 80만원 사이

▶ 자격 : 신심이 돈독한 불교신자에 한하고, 기수련자는 특이 환영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창원포교당 향 선 사 지도법사님 도 안

TEL : (055)276-9855 / 직통 : 016-726-0830

불교신도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초여름의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1) 등록하고 아직 성혼을 이루지 못한 신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상담을 통한 서류비 정도의 재등록으로 다시 성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요즘도 어려운 경제관계로 다소 도움이 되시고자 5월초부터-8월말까지 10만원 정도의 비용만 받고 회원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위치안내 ◀

1호선 소사역 하차 (북부 3번출구 150m지점)

전화상담 후 방문약속



원정 이영숙 협장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거주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연구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288-2944

기문둔갑강의안내

(사주, 작명, 택일, 풍수)

- 교육장소: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문의: 02-961-0870 ~ 2)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문의: 031-201-3377)

- 개강 일시: 2003년 9월첫주부터 매주 수요일(서울): 기초반(오후 7시 - 9시까지) - 원리론
- 매주 목요일(서울): 고급반(오후 7시 - 9시까지) - 해당및작명
- 매주 화요일(수원): 기초반(오전 10시 - 12시까지) - 원리론

- 수 강 료: 학기당 16만원(15주)
- ※ 60세 이상 50%할인혜택으로 8만원(서울)

- 원서접수: 2003년 8월 1일부터 - 8월 30일까지 선착순마감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서울)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부(수원)

- ★ 인터넷접수 - 서울 http://cce.khu.ac.kr 수원 http://ww1.khu.ac.kr/~ice

- 제출서류: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 수강과목: 기문역학(서울), 생활명리학(수원)

- 담당 교수: 손 해림(민간 기문역학원장 02-3476-3433, 3430 www.gimun.net)

- ※ 특선: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개인상담원 참여시 권리 지원

기문둔갑이란?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둔갑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본 강의는 단군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통의 특수비법을 현재의 전맥자 이론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 드립니다. 카운셀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사업운영이나 명리상담원을 하는 분들,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닌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학문입니다.

원장 특별개인지도 60회 완성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기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서명에 따라 다름수 있음)

- ★ 조상신과 중암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풀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세수를 같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등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 대상 : 스님, 법사

중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익한 중암신도 단병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아줍니다. (모든 병의원)
- ★ 무명,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형으로 잠무 이루는 분
- ★ 병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주위에서 불매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기자가 본 혜초 스님

"아침을 짓지 말고 선업을 쌓으라는 말은 세상을 참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꼭 참고 사세요." 혜초 큰스님은 스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법담을 들려준다. 일흔 살이 넘도록 6년째 자리에 누워 있는 스승 덕암 스님을 모시고 있는 스님의 인고(忍苦)도 한 몫



◇72세의 세수에도 동자같은 미소를 간직한 혜초 스님.

이를 일면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체계가 아닙니다. 신앙할 만한 이유가 있어 믿는 세계거든요. 발심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전혀 다른 나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것에 의지해서 실천하면 마침내 얻고자 하는 보다 나은 삶, 보다 인간다운 삶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지극한 신심과 바른 이해(信解)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미리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설계 자체를 의심해서는 훌륭한 집은 고사하고 공사 자체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정행(正行)입니다.

살이란 흡사하게도 꽃 피러 다니는 벌과 같아서

없다"고 말한다. 덕암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은 혜초 스님은 수행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잠자는 시간도 하루 4시간을 넘기지 않아 스님의 방은 새벽 2시 불이 켜진다. <석문의법>에 있는 행수해와 사성제로 불보살에게 올리는 새벽의례에 이어 금강경, 원각경

노구 아랑곳 않고 스승 덕암스님 6년째 수발

보안장, 법화경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를 차례로 독송한 후에야 아침예불이 시작된다. 이어 아마타경 독송과 참선 수행으로 아침을 맞는 스님은 매번 발우공양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불이성(不二城) 법륜사 주지로 있으면서도 직접 돈을 만지지 않는다. 다른

(人生好似採花蜂) 아침저녁으로 동서로 날아다니며 바쁘게 살면서(朝暮東西也太匆) 백가지 꽃을 따다가 꿀을 만들어 놓지만(採得百花成蜜後)

결국에는 고생한 한 마당이 모두 허사로다.(剝頭辛苦一場空)

이 게송을 잘 새겨 보세요. 요즘 우리 불자들은 근기가 아주 많습니다. 신심이 돈독해야 하는데, 바쁘다면서 걸음으로 형식적인 불교를 행하고 있을 뿐이지요. 불

사찰에서 법문을 하고 난 후에도 거머비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부처님 제자가 법을 전하는데 웬 거머비냐'고 질타한다. 물질을 가까이 하면 나태함이 찾아든다는 것이다.

1932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난 스님은 14세 되던 45년 진양 청곡사에서 김양택(金良澤)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53년 해인사에서 인곡(仁谷)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불교전문강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와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60년 현 태고종 종정인 덕암 스님을 법사로 견당, 양주 흥곡사, 서울 약수암, 서울 영평사에서 정진해 왔다. 태고종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등을 거쳐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를 청정히 할 때 길이 열립니다. 지금 세상이 불인하죠? 이럴 때는 참고 사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색하고 아쉬운 것이 많아도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이후에는 좋은 때가 옵니다. 실사 좋은 때가 오지 않더라도 이것이 중생의 희망이지요. 세상은 참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고, 사바세계는 감인(嗔)세계라 합니다. 혼자 잘 살자고 불교를 한다는 것은 바른 신행이 아니지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서로 잘 사는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세상에 나고 죽는 것이 인간사란 일은 아니지요. 세상 만물이 모두 오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하늘에 오르니 그것을 낮이라 하고 바다로 침잠할 때를 두고 밤이라 할 뿐, 그 태양의

생활속 불법 실천해야 참불자 믿음·이해없는 사회엔 혼란만

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바른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제 할 일 다하고 할 일 없을 때 절에 나가는 것은 올바른 신행이 아닙니다. 꿀을 만드는 것은 벌인데 나중에 꿀을 따가는 주체는 따로 있거든요. 사람의 인생살이가 그래요. 절에 자주 나오지 못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해야 불자라 할 수 있지요. 바른 실천을 할 때 비로소 믿음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이해가 결여되었을 때 그 사회는 혼란하게 되고, 사람들은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윤락하지 않은 땅에서 만물의 생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서로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메마른 땅에서는 평화의 꽃이 피지 않아요. 성장이라는 것도 실은 모래위의 누각일 따름입니다.

불법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고 내 것이 되

오고감을 두고 시작과 끝이라고 일컫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눈을 떠 밝음을 알고 눈을 감아 어둠을 알지만, 밝음과 어둠의 존재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오고 감으로 시작과 끝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곧 여래(如來)의 오고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자라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믿음의 공덕을 자라게 하고 믿음은 반드시 여래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깨지는 것은 오직 당사자의 한 생각, 분명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이 뜻을 잘 헤아려 옹양 정진하길 바랍니다.

글=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원스님의 스님이야기

해산스님

표종사(表忠寺), 출가본사이다 보니 많은 애정과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처음으로 '중노릇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이 출선수법으로 보여주신 해산(海山)스님이 계시던 곳. 1976년 사미계를 받고 산중의 어른이신 스님께 출가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문안 인사 드리려 매일 내원암으로 올라가곤 했다. 열 세살 어린 나이에 눈을 맞으며 올라다니던 그 길은 왜 그리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던지...



그림·문병성

열곤 했다. 매미 울음소리로 귀가 멍멍할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 청년들은 법당에서 참선을 하였고 해산스님께선 밀짚모자 눌러 쓰고 평상시대로 호미 하나 들고 도량안 화단의 풀을 뺐다. 시원한 그늘이 그리워지는 오후였는데 세수 80이 가까운 노스님이 직접 풀을 매는 모습을 보자 학생들과 청년들은 법당에 계속 앉아 있기가 미안해서인지 하나 둘씩 일어나 울먹이 동참하였다.

노스님께선, 청년들이 며칠 전에 머무는 수련대회를 통해서 자기 불교를 잘 아는 것 같은 아상을 가질까 염려했는지 같이 풀을 매는 동안 시골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옛날 얘기 해주듯 편안하게 법문을 해주셨다. 노동의 소중함을 책을 통해서만 알았던 젊은이들은, 큰 스님이 법상(法床)에서만 법문하시는 줄 알았다가 몸으로 땀 흘리는 것도 수행의 한 부분임을 직접 일깨워준 노스님의 법문과 소탈한 모습에 감복한 나머지 수련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새벽과 저녁엔 열심히 정진하고, 오전과 오후는 열심히 땀흘리는

울먹을 했다. 스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신심있고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처음으로 '중노릇은 이렇게 함으로써 소화시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먹는 밥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여주는 것이니 피눈물로 알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어린 나이에 무조건 우려려 보기만 하고 막연한 두려움만 있었던 나에게 스님의 자비로운 모습은 큰 충격이었고 나도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다는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

만가지 말보다 직접 체험해서 몸으로 감동한 이들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실한 불자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법상에서 주장자 대신 능동(能動)으로 많은 이들은 부처님의 품안으로 이끌었던 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았던 인연에 지금도 표종사를 떠올릴 때마다 감동하면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젊은 시절 해산스님은, 당시 전국 선원에서 열손가락안에 들 정도로 그 정진력을 인정받은 수행자였다. 연로해서도 뼈와 가죽만 남아 있을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지만 수좌들에게는 등골에 식은 땀이 나도록 힘차게 경책하셨다. 그럼에도

'중노릇 이렇게 하라' 출선수법 '一日不作 一日不食'에 철저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제방 선원에서 운수 남자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먹지 않는다'는 법문이 말로만 하는 공염불이 아니라 그 연세에도 해야만 하는 수행자의 하루 일과임을 항상 실천으로 보여주신 스님은 모든 수행자의 귀감이 되셨던 것이다.

해산스님께선 79년 열반에 드셨다. 먼 발치에서 입적하셨던 소식을 접하고는 마치 부모님을 잃은듯 목이 메어 왔으나 스님께서 말학(末學)배에게 남기신 호미정진의 정신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다.

도시 포교당에서 포교를 정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가끔 피곤하고 힘들때 노구를 이고서 호미를 놓지 않으셨던 스님을 떠올린다. 그러면 마음 저 밑에서부터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힘이 난다. 젊었을 때 열심히 정진해와 나이 들어서도 허리가 곧아서 그 정진력으로 좌탈입망 할수 있고, 수좌는 좌복위에서 목숨을 마쳐야 한다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쩡쨍하다.

현원(玄元)스님은 부산산으로 표종사에서 득도했다. 통도사 강원을 수료했으며 1987년까지 13년거를 성만했다. 87년부터 96년까지 8년간 통도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분당연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진실하게 살려면 인욕하는 수 밖에...

Advertisement for '부처님 등불' (Buddha's Lamp) featuring a candle and text about its benefits for health and enlightenment.

Advertisement for '당뇨' (Diabetes) treatment, including a list of symptom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oilgem Medical Clinic.

Advertisement for '지장보살원력' (Jizang Bodhisattva's Power) featuring a portrait of a monk and text about spiritual benefits.

Advertisement for '실크로드 챌린지 참가 안내' (Silk Road Challenge Participation Guide) with details on route, dates, and contact info.